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동 정

- ▶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지난 3월 11일 12시 여의도 증식당 홍보석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인쇄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화 촉

- ▶ 정진영 바우프러스 대표의 장녀 은영양이 오는 4월 9일 신도림 S컨벤션 에르모사홀에서 화촉을 올린다.
- ▶ 이장환 한신정판사 사장의 장녀 지성 양이 오는 4월 2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 ▶ 유수용 한성인쇄사 대표의 장녀 영경양이 지난 3월 12일 아카데미컨벤션웨딩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의 장남 경식군이 지난 3월 6일 SC컨벤션 강남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전순관 (주)갑우문화사 대표이사의 차녀 서연양이 지난 3월 6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한석현 서울교역상사 대표의 장녀 지연양이 지난 3월 6일 오나르 바이 오스티엄에서 화촉을 밝혔다.

◆ 부 음

- ▶ 김상문 전 동아출판사 회장이 지난 3월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장현익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의 모친이 지난 3월 15일 별세했다.

▼ 인쇄 4단체장, 잉크가격 대책 간담회



인쇄 4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이충원 인쇄연합회장,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김진배 인쇄기술협회이사장 등 인쇄 4단체장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 인쇄연합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신임 회장 및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였으며, 논의된 안건은 잉크가격 기습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었다. 4단체장 회의 후 동양잉크 등 잉크업계 대표자들을 만나 잉크가격 기습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남수 회장은 “수지 및 원유상승 및 환율 하락으로 잉크업계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인상폭이 너무 커 인쇄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대구중앙도서관 ‘직지와 함께하는 인쇄문화’ 개최



대구중앙도서관은 3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지와 함께하는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2011년 세계유산선수권 대구대회 참가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낙육재에서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협조로 청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인쇄유물을 만나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세계최고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백운화상불조직지심체요절’, 한글창제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국보 제

70호 '훈민정음' 등이 전시된다. 또 각 시대별 국보급 유물 20여종과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인형으로 표현한 직지, 월인천강지곡 디오라마 2종, 각종 인쇄기구, 문방사우 등 인쇄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유물 설명과 함께 인쇄문화가 발달하게 된 경위, 시대별 인쇄문화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쇄문화 비교연표 등 인쇄문화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방문,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은 지난 3월 3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진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쌀쌀한 날씨에 참여해 주신 이사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성과를 거두는 협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201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을 승인했으며 2011년도 사업계획안등을 원안대로 상정, 통과시켰다.

중기청, 경영 컨설팅에 215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업체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 올 해 21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창업 5년 미만의 업체들을 위한 '창업컨설팅'과 5년 이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성장컨설팅'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컨설팅은 창업 초기 공장설립대행 지원과 함께 사업타당성과 R&D기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성장컨설팅은 성장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본적인 체질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중기청은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300개의 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으며 민간협회 등과 연계해 컨설턴트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 이 전

- ▶ (주)수정당인쇄 대표가 정해영씨로 변경됐다.
- ▶ (주)서보미디어 대표가 김완자씨로 변경됐다.
- ▶ 영프로세스프린팅(대표 이진수)이 최근 업체명을 (주)영프로세스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 (주)씨엠프린팅(대표이사 이충근)이 최근 업체명을 (주)동진화학으로 변경했다.
- ▶ 광진문화사(대표 이충환)가 최근 업체명을 광진문화로 변경했다.
- ▶ DMS삼성(대표 조기홍)이 최근 업체명을 삼성디엠에스(주)로 변경했다.
- ▶ 시온정판사(대표 방희영)가 최근 업체명을 시온애드컴으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서울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B206호로 이전했다.
- ▶ 소안인쇄사(대표 이종기)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오장동 90-20 으로 이전했다.

◆ 변 경

- ▶ (주)상지피앤아이(대표이사 이창래)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을지로3가 291-43 동성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
- ▶ 금풍문화사(대표 김복환)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140-3으로 이전했다.
- ▶ (주)조은씨앤피(대표이사 김주영)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2가 85-4 민성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 ▶ (주)컬처플러스(대표이사 강민철)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2가 13-7 윤미빌딩 5층으로 이전했다.

▼ 상공회의소, 중기 ERP 구축 지원

중소기업들의 ERP(Enter 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자원관리) 구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 회관에서 ERP 전문업체인 ㈜이카운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를 위해 ERP 대중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ERP는 기업의 경영정보를 관장하는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만만치 않은 구축비용 때문에 도입을 망설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ERP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이카운트가 공급하게 될 ERP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이 편리한 것은 물론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해 해외공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용 기반도 갖추고 있다. 또 전국 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우, ERP 가입비 50% 할인혜택(20만원→10만원, 부가세 별도)을 받을 수 있고, 월 사용료도 25% 할인(4만원→3만원, 부가세 별도) 받을 수 있다.

▼ 포장기계협회, 인터팩에 한국관 조성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이일해)는 지난 2월 25일 코트라 ICP 6층 중회의실에서 오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인터팩 2011 전시회의 한국관 사업 3차 설명회를 참가업체, 코트라, 인터팩 전시회 한국대표부 및 한국포장기계협회에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시 물품의 운송 계획과 전시 부스 장치에 관한 설명 및 협의, 전시 운영 인력의 여행 계획 등에 대한 안사가 있었다.

이번 인터팩 2011 전시회의 한국관 사업은 KOTRA와 한국포장기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대 포장전인 인터팩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산 포장기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캐나다, EU시장 및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인터팩 2011 전시회는 3번째로 한국관이 조성되어 미래팩, 에이시팩, 미래코코리아, 하나, 한국뉴매틱, 신스텍, 선전에스엠, HPM, 산호기계, KPMA 등 14개사가 참가하게 되며 흥아기연, 세종파마텍 및 카운텍 등 21개사는 개별 참가하게 되어 총 35개의 한국회사가 인터팩 2011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 국제포장전시회 5월 12일부터 개최

세계 최대의 국제포장전시회인 인터팩2011이 오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열린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국내 30개사를 비롯해 전세계 60개국에서 2750개사가 출품하고 약 120개국에서 18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팩2011은 지속성(Sustainability), 안전성(Safety), 편의성(Convenience)이라는 세가지 테마로 포장산업의 현황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UN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회에 ‘SAVE FOOD’라는 특별행사를 개최하여 포장산업의 가치사슬인 식품수송 및 물류 등의 각 단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전세계 금속 포장산업업체들의 만남의 공간인 ‘금속패키징플라자(metal packaging plaza)’와 함께 전시회 7a에서는 삶에 질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포장(innovationparc packaging)’을 둘러볼 수 있다. 단체여행관련문의. 서울인벤트항공(02-3452-1211), 인터팩 한국대표부 라인메세(02-798-4343)

▼ 대구인쇄협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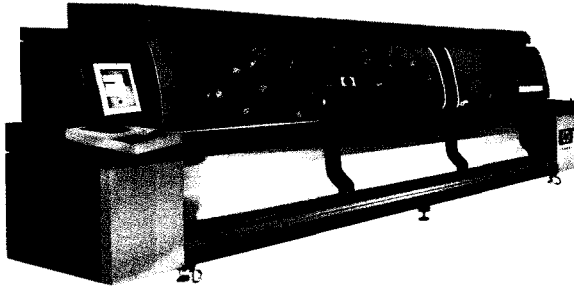


대구인쇄문화협회(회장 이세원)는 지난 3월 7일 대구 엘디스리조트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부 정기총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2010년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결산승인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 가결했다. 2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박희준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 이사장, 고문환, 한해룡 전 이사장, 김상원 대구협회 초대 회장 등 인쇄 및 관련업계 대표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쇄현장에서 꼭 필요한 ‘습수문제’ 등을 10여 년간 집필 연재한 홍영상 세한정밀인쇄사 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우수업체수상에 교육사(대표 김세현)가, 모범근로자상에 황연숙 대보사 팀장과 서윤호 영광정밀 부장이 표창과 부상(부부동반 제주도여행상품권)을 받았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 HP, 제2회 아·태 및 일본 지역 사이텍스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개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프린팅 업계의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제2회 'HP 사이텍스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 (HP Sitex Digital Print Awards 2011)를 개최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대회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P 사이텍스(Sitex)는 초고속 와이드 포맷 디지털 프린팅 제품으로 버스나 택시 승강장, 빌보드, 지하철, 백화점 등의 옥 내외 디지털 프린팅 광고물을 인쇄하는 대형 출력 장비이다. 'HP 사이텍스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는 디지털 프린팅 시장에 큰 공헌을 끼친 우수 간판 출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지난 해 설립되었다. HP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이미징프린팅 그룹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의 마틴 카발로(Martin Carballo) 책임자는 "지난 해 수립된 HP 사이텍스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는 이 지역에서 100여 건이 넘는 뛰어난 작품이 출품되는 등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간판 업계의 다른 출력 업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디지털 출력 수준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HP 사이텍스 대형 프린터로 출력한 작품에 한해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 분야는 운송 수단 그래픽, 실내 광고, 옥외용 광고, POP광고, 친환경 디지털 출력 총 5개 부문이다. 수상작 발표는 올해 7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 19회 상하이 국제 광고 및 간판 기술 장비 전시회와 함께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출품작 심사는 창의성, 외관, 마케팅 효과, 효과적인 잉크와 컬러 사용, 고객 만족 등의 주요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각 심사 항목별로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며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수상자 1명에게 주어지는 대상과 창의적 디자인상(Best Creative Design)을 포함하여 총 17개 상이 수여된다. 이번 시상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 요청은 각 지역 HP사이텍스 판매 담당자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거나 이메일(fp_apsales@hp.com)로 문의하면 된다.

▼ 성도GL/성도솔루션 임직원 대상 비주얼 마케팅 교육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2월 24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고객 친화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주얼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객들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에서는 이런 다양한 교육 시간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발전을 도모하여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고객들과의 접점의 폭을 넓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진에드컴 오일학 부장, 한국무역협회장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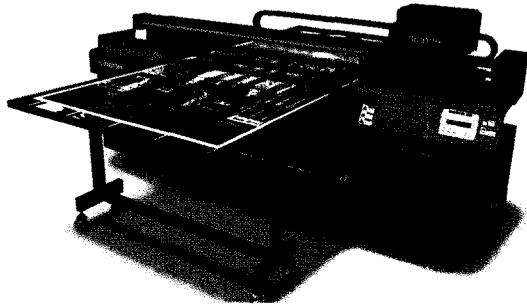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에서 물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일학 부장이 지난 3월 16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 3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일학 부장은 다양한 종류의 고객의 제품을 입고고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객의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분실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택배송장 바코드 인식으로 택배시 물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아이폰에 직접 바코드를 생성하여 방문 출고시 전표 출력 없이도 바코드를 인식하여 제품출고가 이루어져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 신도리코, UV프린터 12종 출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다양한 소재에 원하는 크기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는 산업용 출력기 UV(Ultra Violet) 프린터 12종(1600시리즈 및 2500시리즈)을 출시했다. 지난 3월 9일 신도리코는 상업용 UV 프린터를 12종을 선보이면서 이를 계기로 첨단 기술력과 솔루션 서비스 역량, 폭 넓은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도리코의 UV프린터 시리즈는 일반 종이 및 특수 용지는 물론 유리, 나무, 플라스틱, 철 등 다양한 소재에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해 디지털 인쇄 및 산업 인쇄 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신개념 프린팅 장비다. 특히 모든 재질에 고품질의 컬러 출력이 구현되어 일반 출력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외장이나 미술 작품의 섬세한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활용되는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UV프린터의 특징점은 고객지향형 자동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킨 점이다. 신도리코 김성웅 이사는 “SINDOH UV 프린터는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한 신개념 출력장비로서 신도리코가 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완벽해온 만큼 신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폭 넓은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초일류 기업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도리코의 UV프린터는 ▲자동 헤드 높이 조절 ▲헤드 충돌 방지 시스템 ▲하이브리드 타입 설계 ▲자동 진공 제어 시스템 ▲미디어 원점 자동 세팅 시스템 등을 갖춰 고객에게 사용 편의성과 작업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 2011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4월 21일부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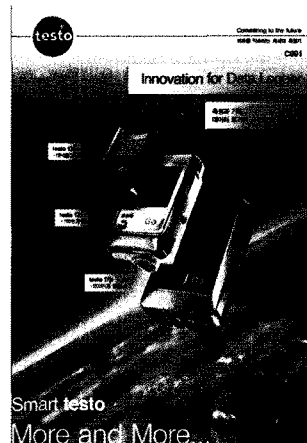
2011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이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Hall A에서 열린다. 디지털 사진영상의 전 국민적 확산과 국내외 최신 사진영상기술 시현 및 정보교류 촉진, 사진영상 관련 산업

기자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사진영상기자재전에는 총 120개 업체 530부스가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On-line Community 사진전, 디지털 이미징 세미나, 벤더 세미나 등이 열린다. 디지털이미징 세미나에는 손정일, 김용성, 김정대, 신마식, 이박고 씨의 무료강의와 함께 Helen Yancy 씨 등의 유료강의도 열린다.

홈페이지 www.photoshow.co.kr

▼ 테스트코리아 데이터로거 testo 175 및 176 시리즈 출시



독일 측정기기를 판매해 온 테스트코리아(지사장 이명식)가 보다 보안능력과 안정성, 편리성을 강화하여 온습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 testo 175 시리즈와 testo 176 시리즈를 출시했다. 4종류의 testo 175 시리즈는 최대 1백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수명이 긴 배터리를 3년 동안 전문적인 온도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장기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7종류의 testo 176 시리즈는 최대 200만 개의 데이터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수명이 8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한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는 데 편리하다. 특히 충격에 강한 메탈 하우징으로 제작되어 거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현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이다. 패스워드 기능으로 보안 강화, 배터리 소진 시에도 데이터의 분실 염려가 없으며, 패드락을 이용한 도난 방지와 벽걸이 홀더도 있다. 또 USB와 SD카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측정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읽어내고, 원버튼식 메뉴 탐색과 밝은 백라이트로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테스트코리아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료비 상승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온습도 관리, 가장 체계적인 측정과 분석이 측정 대상 및 에너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민감한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데이터로거 시리즈로 새로운 차원으로 온습도를 관리하는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testo.co.kr

▼ **이지앤비, 특수가공 샘플집 출시**



이지앤비(대표 이충희)가 최근 '2011 이지앤비 특수가공 샘플집 캘린더'를 출시했다. 이번 샘플집 캘린더는 이지앤비가 만든 네 번째 샘플 북으로, 이지앤비만의 기술로 기존 책표지의 코팅 스크래치 문제와 부분 코팅 등의 문제를 한 번에 가공 처리함으로써 디자이너가 표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질감, 패턴,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양장 제본에 많이 쓰이는 크로스시 질감, 색상 등의 문제와 가공 처리에서 박인쇄를 통한 한정적인 이미지 표현 방법에서 오프셋 인쇄를 하여 가공처리 함으로써 다양한 색상과 질감,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충희 대표는 "양장제책에 주로 쓰이는 질감과 색상 등의 문제 및 가공처리 과정에서 박인쇄를 썼던 표현 방법을 벗어나 오프셋인쇄를 통해 가공처리해 다양한 색감과 질감,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비닐인쇄의 새로운 기준 'MVP 1100' 특허등록 완료**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포털 기업인 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 박진만)은 비닐인쇄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제어 친환경 UV 옅색 비닐인쇄기 MVP1100'을 출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허번호 제1021596호, 제1021597호 내용은 비닐인쇄 시 오차의 한계를 최소화하며, 정확한 위치와 간격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출판 · 관련업계 뉴스**

▼ **중국신화사, APPA 명예회장상 수상**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태평양 출판협회(명예회장 백석기) 출판상 심사에서 한국이 번역 출간한 <중국신화사>(주)웅진씽크빅)가 본 출판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APPA

명예회장상을 받았으며, <동아시아 문학 100>(한길사)과 <생명과 장소>(그린비)가 각각 일반분야 금상과 학술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 APPA 출판상에는 8개 회원국의 도서 116종이 접수됐으며, 내용 및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제본, 인쇄 수준, 발행부수, 번역의 난이도 등을 선별 기준으로 하여 △학술, 아동, 일반 분야 금, 은, 동상 △최우수 도서에 대한 명예회장상(분야 상관없음) △장려상(분야와 상관없음) 등 총 11개 상의 수상도서가 선정됐다.

APPA 출판상은 APPA 회원국 간의 출판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5년에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국 출판사의 번역 출판 도서와 공동 출판 도서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 **출협, 아부다비국제도서전 '마켓 포커스'로 참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된 '2011 아부다비국제도서전'에 '마켓 포커스'로 초청돼 참가했다. 아부다비국제도서전은 매년 '마켓 포커스'와 '컬처 포커스' 2개 국을 선정해 초청하고 있으며, 올해의 컬처 포커스는 프랑스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본 도서전에 32평방미터 규모의 한국관을 설치 운영했으며, 교원, 여원미디어한국가드너, 한국슈바이처, 초이스메이커 등 4개 출판사가 참가해 자사 도서 홍보를 비롯한 저작권 수출 상담을 벌였다. 이밖에 위탁 전시 도서, 한국 문화 관련 도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 도서 100여 종도 함께 전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이 2011 아부다비국제도서전 마켓 포커스인 만큼, 한국의 출판 시장 전반과 국제 출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출판시장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3월 16일에 개최했다. 또 3월 15일에는 이문열 작가, 김주영 작가, 김민정 시인과 함께하는 '작가와 의 대화' 시간이 한국문학번역원 주관으로 열렸다.

▼ **출판교육기관 SBI 원장에 정은숙씨**

출판사 '마음산책'의 정은숙 대표가 최근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출판교육기관 에스비아이(SBI, Seoul Book Institute) 새 원장(제4대)에 취임했다. 1985년 출판계에 입문한 뒤 여러 출판사에서 편집장과 주간 등을 지냈으며, <편집자 분투기> <책 사용법> 등의 책도 써낸 정은숙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 **"반값 도서 퇴출 점진적으로 추진"**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고영은)는 구간 서적의 할인율을 최고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실천 방안을 점

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 신임 집행부는 최근 세종문화회관 벨라지오 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판유통 건전화, 전 국민 독서운동, 출판인 교육 강화, 전자출판 활성화 등 역점 사업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실천 방안의 시행 여부와 관련,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인 조재은 양철북 대표의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 이행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행합의를 당장 공식 채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단행본 출판사 430여 개 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출판인회의는 올 1월 주요 서점들과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 구간 서적의 할인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GMK 등 오픈마켓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다 합의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제지 뉴스

▼ 펄프가격 3월 이후 오름세

국제펄프가격(활엽수표백펄프 기준)이 3월 이후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펄프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톤당 870달러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해 2월말 현재 톤당 730 달러를 기록한 국제펄프가격이 올해 3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당분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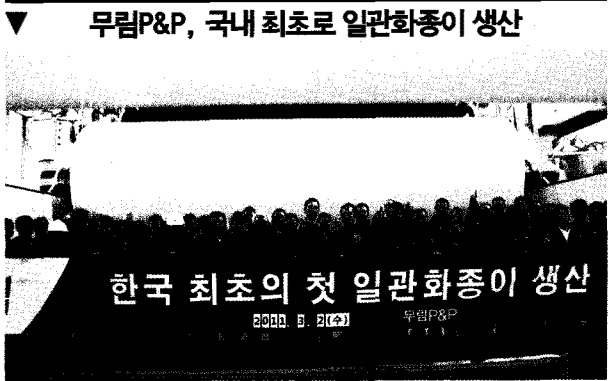
그 이유로 우선 최근 몇 개월간 계속된 침엽수펄프(SW)의 가격상승이 그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활엽수표백펄프 가격이 동반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침엽수펄프는 지난해 12월 톤당 880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 1월에 890달러, 2월에 910달러를 기록했으며, 3월에는 940~950달러 선에서 형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침엽수펄프의 가격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활엽수표백펄프와의 가격차가 계속 벌어지자 몇몇 펄프 메이커에서는 활엽수표백펄프의 생산 카파를 줄이고 침엽수펄프생산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시 활엽수표백펄프의 재고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펄프수요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초 춘절이후 침엽수펄프 가격이 전월대비 톤당 30~40달러의 큰 폭으로 인상되자 몇몇 펄프 메이커들이 활엽수표백펄프의 3월 가격인상을 추진중이라는 소식도

향후 활엽수표백펄프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자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화량 유동을 늘린 것이 달러화 약세와 유가상승을 가져왔고 2월초 이집트의 민주화시위로 중동산 원유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 먼 거리를 돌아가는 등 운송거리 연장에 따른 운송비 상승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30분 국내 최초의 일관화종이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림P&P는 지난 2월 일관화공장 모든 설비의 시운전을 마친 후 시험 생산에 돌입, 3월 2일 첫 종이 생산에 성공했는데 이번 일관화공장의 초출품은 곧 한국 최초의 펄프 제지 일관화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무림P&P는 이후 지속적인 설비점검과 철저한 품질확인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일관화종이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 방문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Hi Q Partner's Day(이하 Partner's Day)라고 명명된 금번 행사는 한솔제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중시 경영의 해' 선포와 함께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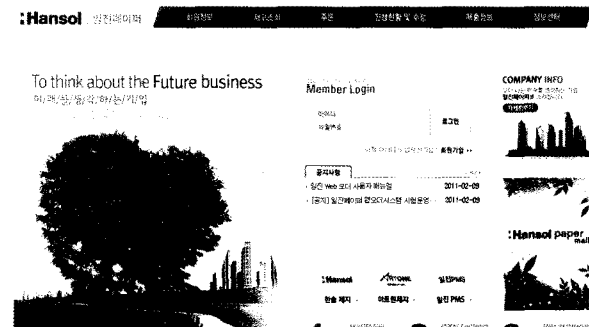
한솔제지 영업본부 직원들은 2월부터 매일 한차례씩 을지로, 성수, 일산, 파주 등에 위치한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노력해 온다는 계획이다. 권교택 대표이사는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로 고객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활동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활동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삼화제지, 신제품 에코하임 출시

삼화제지(대표 김성호)는 최근 친환경 혼모지 ‘에코하임(Eco-Heim)’을 출시했다. 에코하임은 우리 전통 한지를 연상시키는 티끌 무늬와 눈에 부담이 없는 자연스러운 백색과 아이보리 계열 색상이 더해져 마치 고전 영화나 사진을 볼 때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제품 특성에 맞게 형광염료도 적게 들어가 FSC 펄프로만 생산되었다. 시중에 출시된 국내산 혼모지에 비해 티끌이 작으면서 촘촘해, 무늬는 은은하고 종이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살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삼화제지 홈페이지를 통해 Twitter로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으며, 을지로에 위치한 삼화 페이퍼 갤러리를 방문하면 에코하임으로 만든 메모패드를 받아 볼 수 있다.

▼ 일진페이퍼, 웹 오더 시스템 본격 가동



일진페이퍼(대표 박경재)는 차별화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 오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약 6개월간 준비된 웹 오더 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재고 조회, 물류지점 선택 및 주문, 실시간 배송현황 및 청구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고 안정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팩스 및 전화를 이용하던 지난 오더 시스템을 벗어나 인터넷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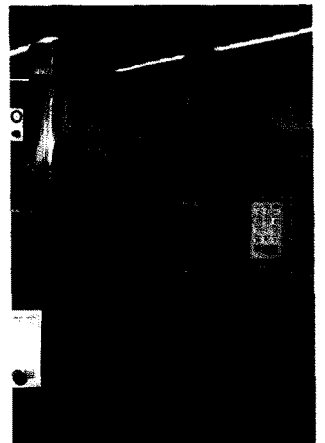
하여 고객들에게 실시간 신속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품질의 물류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진페이퍼는 유통사 부분 최초로 이루어지는 웹 오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어 ‘고객 동반 성장 실현’이라는 올해의 일진페이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 도약 발판이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웹 오더 시스템은 한솔제지의 페이퍼물에도 연계되어 있다. 일진페이퍼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기획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웹 오더 시스템의 홈페이지는 www.hansolpapermall.com 이다.

>> 해외 뉴스

▼ 하이델베르크 애니칼라, 패키징 인쇄에도 성공적

하이델베르크의 애니칼라 기술은 고품질 인쇄물을 단통 작업에서도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의 소량 오프셋 인쇄와 비교해 애니칼라 잉킹 유닛은 작업준비 시간을 거의 70%까지 줄여준다. 또한 잉크존 설정이 필요 없고 세척 시간이 짧아 작업 교환이 더욱 빨라진다.



독일의 에브로 컬러(Ebro Color) 사는 하이델베르크의 애니칼라 잉킹 유닛을 갖춘 스피드마스터 SM 52-5 인쇄기에 코팅 유닛을 함께 도입한 첫번째 포장관련 인쇄사다. 저만 브로드벡(German Brodbeck)씨는 “애니칼라 기술을 선택한 것에는 인쇄 공정의 폭넓은 표준화와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며 단통 인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에브로 컬러사는 500개 이상의 단통으로 박스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95% 이상의 판매를 올리고 있다. 독일어권 국가의 약 1,000여 고객에게 500매에서 만매 사이로 백, 베개 및 이중벽의 박스를 제작한다. 모든 패키징 주문의 반 정도가 애니칼라 인쇄기에서 생산하고 있다. 저만 브로드벡(German Brodbeck)씨는 “몇 백 매의 단통인쇄물은 신제품을 개발했거나 테스트 목적으로 소량의 패키징 작업을 원하는 회사들이 주문한다. 애니칼라는 매우 작은 통수를 인쇄할 때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 만로랜드 일본지사

전시회 대신에 지진·해일 피해복구 지원키로



지난 3월 11일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만로랜드 한국지사와 일본의 총책임자인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현지에 머물며 일본지사와 일본고객의 피해를 확인하고 본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만로랜드는 우선적으로 오는 9월에 열린 예정인 IGAS 전시회 참여 준비를 중단하고, 전시회참여 예산을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의 사업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만로랜드 일본지사는 현지 모든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고객과 피해 규모,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을 확인하여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객들의 피해 상황이 매우 다양하여 각각의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만로랜드 일본지사의 메인 오피스는 도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사카 오피스에 회사의 중요 자료를 이동시키고 부품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도쿄 인근에는 가솔린의 부족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 고객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진 및 방사능 등에 대한 우려로 일본지사 직원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 도쿄 오피스나 오사카 오피스에서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만로랜드 일본지사는 고객의 피해를 만로랜드의 피해로 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하기로 결정했다.

▼ 하이델PMA, 국제적 트레이닝 제공

하이델베르크사가 주최하는 프린트미디어아카데미(PMA)가 두 가지의 국제적 실기인 프린트 프로페셔널(Print Professional)과 프린트 실습(Print Experience)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독일 뮌스터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3개월 코스와 6개월 특별 코스가 있는데, 3개월코스의 경우 4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9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다.

프린트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은 인쇄 프로세스와 최신 기술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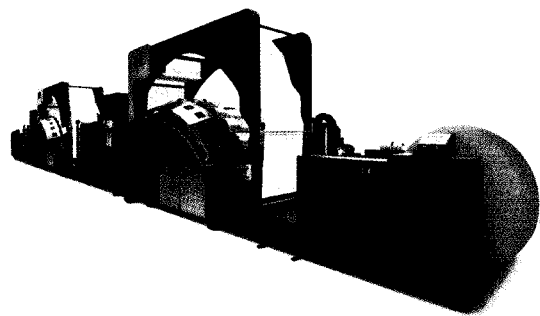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인 프린트 경험은 독일 인쇄사에서 실습을 통한 지식 습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린트 프로페셔널은 인쇄사와 공급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적 기초와 실질적 실습 경험을 제공하데 초점을 둔다. 참석자는 인쇄물 디자인에서 인쇄 준비, 인쇄에서 후

가공까지 모든 공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다양한 인쇄 기술, 특수 효과에 익숙해지게 된다. 인쇄사와 후가공 회사 방문 및 하이델베르크 공장과 PMA 방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끝낸다. 각 코스의 내용은 참석자의 능숙도 및 개인적 트레이닝 목표에 유연하게 맞춰 제공된다. 언어는 영어와 독일어로 가능하다. 프린트 실습 트레이닝은 선별된 독일 인쇄 회사에서 생산 공정이 실제로 진행되는가를 배우게 된다. 디자인에서 후가공까지 모든 세부적 공정을 배울 수 있다.

▼ CTPS, HP T300잉크젯 웹 프레스 도입



HP는 홍콩에 소재한 출판 수출 기업인 CTPS가 HP T300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 (HP T300 Color Inkjet Web Press)를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CTPS는 HP의 최상의 제품 라인인 날장 공급 방식의 상업용 인디고 프레스인 HP 인디고 7500 디지털 프레스도 설치할 예정이며 HP 인디고 7500은 자동화 및 출력 품질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출력 활용 시 중소형 아날로그 오프셋 프레스 대응으로 이상적이다. CTPS는 HP T300으로 출력한 책의 커버를 제작하기 위해 HP 인디고 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CTPS의 피터 초(Peter Tse) CEO는 "HP T300을 선택한 것에 매우 자신 있다. T300을 통해 우리 출력 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이다. HP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성공리에 제품을 설치한 것을 보고 제품을 자신 있게 구매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의 기도 반 프라그(Gido van Praag) 부 사장은 “HP T300과 최근에 출시된 HP T200/T350컬러 잉크젯 웹프레스, HP 인디고 7500/W7200 디지털 프레스를 포함한 HP의 솔루션 제품군은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출판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CTPS가 출판업 솔루션으로 HP를 선택한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초 CEO는 “CTPS는 기업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도서 출판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출판 기업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HP 디지털 출력 을 통해 중·단기 도서 제작 능력에 유연함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출판 시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판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HP T300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는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는 HP 확장형 출력 기술(Scalable Printing Technology)에 기반한 제품으로 30인치(762 mm) 와이드 롤을 최대 1,200 x 600 dpi 가능 해상도로 출력한다. 4 컬러 프레스는 분당 최대 400피트(122 m)의 속도와 최고의 해상도를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도서 출판 기준에 부응하거나 이를 뛰어 넘는 출력 품질을 제공한다.

▼ Bergamo 그룹, 코닥 넥스프레스로 수익 창출

HP는 홍콩에 소재한 출판 수출 기업인 CTPS가 HP T300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HP T300 Color Inkjet Web Press)를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CTPS는 HP의 최상의 제품 라인인 날장 공급 방식의 상업용 인디고 프레스인 HP 인디고 7500 디지털 프레스도 설치할 예정이며 HP 인디고 7500은 자동화 및 출력 품질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출력 활용 시 중소형 아날로그 오프셋 프레스 대용으로 이상적이다. CTPS는 HP T300으로 출력한 책의 커버를 제작하기 위해 HP 인디고 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CTPS의 피터 초(Peter Tse) CEO는 “HP T300을 선택한 것에 매우 자신 있다. T300을 통해 우리 출력 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이다. HP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성공리에 제품을 설치한 것을 보고 제품을 자신 있게 구매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의 기도 반 프라그(Gido van Praag) 부 사장은 “HP T300과 최근에 출시된 HP T200/T350컬러 잉크젯 웹프레스, HP 인디고 7500/W7200 디지털 프레스를 포함한 HP의 솔루션 제품군은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출판 시장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CTPS가 출판업 솔루션으로 HP를 선택한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초 CEO는 “CTPS는 기업 역사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도서

출판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출판 기업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HP 디지털 출력 을 통해 중·단기 도서 제작 능력에 유연함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출판 시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판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HP T300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는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는 HP 확장형 출력 기술(Scalable Printing Technology)에 기반한 제품으로 30인치(762 mm) 와이드 롤을 최대 1,200 x 600 dpi 가능 해상도로 출력한다. 4 컬러 프레스는 분당 최대 400피트(122 m)의 속도와 최고의 해상도를 발휘하여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도서 출판 기준에 부응하거나 이를 뛰어 넘는 출력 품질을 제공한다.

▼ Fortlito73, 코닥 넥스프레스로 수익 확대 실현

이탈리아의 프리프레스 및 디지털 프린트 회사인 Fortlito 73이 KODAK Dimensional Printing에 KODAK NEXPRESS 디지털 프로덕션 컬러 프레스를 추가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Fortlito 73의 공동 오너이자 마케팅 매니저인 Juri Ferrario는 “디멘저널 프린팅을 설치하자마자 고객들에게 샘플을 만들어 발송했다”며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어떤 고객들은 디멘저널 프린팅 효과를 얻기 위해 즉시 진행 중이던 작업을 연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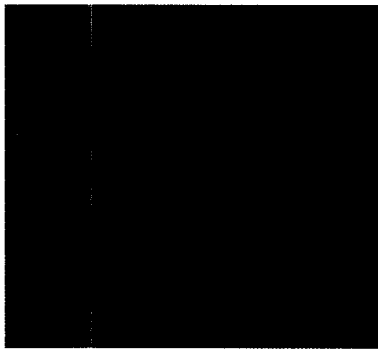
Fortlito 73은 고품질 자료와 다이렉트 메일, 도서, 매거진, 카탈로그, 업무상 서류를 생성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를 하고 있으며 현재 KODAK Dimensional Printing에 매료되어 광택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NEXPRESS Press에 5번째 이미지 유닛을 추가하기도 했다.

Fortlito 73은 프리프레스 부서에서 코닥 프리너지 컨넥트 워크플로, 코닥 엘렉트라 HRL 서멀 플레이트가 장착된 코닥 매그너스 VLF 플레이트셋터 및 코닥의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인쇄 부서는 두대의 흑백 코닥 디지털마스터 시스템과 하나의 코닥 넥스프레스 S2500 디지털 프로덕션 컬러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다.

Ferrario는 “넥스프레스 2100 플러스 프레스를 넥스프레스 S2500 프레스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인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코닥 넥스프레스 인텔리전트 캘리브레이션 시스템(ICS)으로부터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며 ICS를 이용하여 인쇄된 서류의 컬러를 캡처하고 생산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색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dak의 DPS 세일즈 매니저이자 상품군 매니저인 Riccardo Passerini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프린트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부가적 수익을 내기 위한 기회를 찾아내야 하고 KODAK Dimensional Printing은 이들에게 바

로 이것을 제공한다”며 혁신적인 기술이 설치된 프린터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창조해냈고 상업적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코닥, 디지털 판재와 일반 판재의 가격 인상**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사업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디지털 판재와 일반 판재의 인상된 가격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부 측은 이번 가격인상은 오프셋 판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와 시설들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닥의 프리프레스 솔루션 부사장인 Doug Edwards는 “코닥은 인쇄 공정에서 사용되는 잉크와 종이를 비롯하여 에너지와 연료 이르는 많은 소모품의 비용 인상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며 “모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동안, 우리는 고객들과 더욱 친밀하게 그들의 판재에 대한 수요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 인상폭은 디지털 판재 5~10%, 일반 판재 15~20% 가 될 전망이며 인상된 신규가격의 자세한 사항은 모든 고객과 딜러들에게 이달 중에 전달된다. 또한 현재 계약상의 모든 계약사항들은 준수될 것이라고 전했다.

▼ **프린트차이나2011, 오는 9일부터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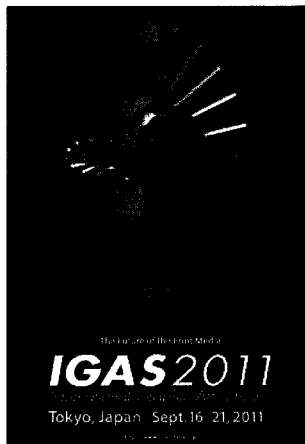
2회째를 맞이하는 프린트차이나가 오는 9일부터 중국 광둥성 동관에서 열린다. 지난 제1회 중국(광둥)국제인쇄기술전시회는 8만 제곱미터 규모에 총 1014개의 업체가 참가, 72개국에서 10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중국 광둥성 정

부에서는 PRINT CHINA 2011을 건설 문화 육성 프로그램 중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지정함에 따라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RINT CHINA 2011의 전시장은 직전대회 보다 규모가 커져 10만 제곱미터를 넘어 1천여 개의 업체에서 참가하여 국내외 12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국제인쇄기술전시회는 앞으로 세계 3대 인쇄관련 국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 한 개씩. 최대 규모의 전시회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드루파를 상하이에서 개최하지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HINA PRINT와 PRINT CHINA가 곧 인쇄 관련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을 정도이다. 현재 중국은 최대의 인구나 고속 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단기간내에 인쇄 분야에서 강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연간 종이 소비량은 약 60kg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300kg 이상인 것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는 중국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을 보더라도 중국은 인쇄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인쇄 관련 국제 전시회의 전망은 더 밝으며 조직력과 적극적 해외 교류를 통해 PRINT CHINA는 인쇄 전시회로서 명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인협은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을 조성해 중국 남부 지역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인쇄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빛나는 인쇄 문화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 **IGAS2011, 계획대로 열린다**



IGAS2011을 주최하는 일본 인쇄기자재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일본 동북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대지진 및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IGAS2011의 개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출전자들로부터 지진에 따라 개최에 영향이 없느냐를 묻는 질문이 많아

신속한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위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이며 만약 현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